

치 사

봉은역사공원 조성의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착공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봉은사 사부대중이 오랫동안 간직한 진솔한 서원을 나누는 동시에, 물질문명에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정신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수도산 맑은 도량에 청량하게 뿌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1,300여년의 유구한 시간동안 봉은사를 빛낸 역대조사들의 공덕을 시작으로 근래에 주지를 역임한 진화스님과 원학스님, 그리고 원명스님에 이르기까지 종단과 봉은사가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에 신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한 성취로 여겨집니다.

역사의 숨결과 21세기 첨단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서울은 한 해에 천 만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강남 봉은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장인 코엑스, 잠실운동장, 그리고 한강과 탄천이라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의 중심에서 천년 고찰인 봉은사야말로 정점에 있는 문화자산이라고 단언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의 전통문화유산이 스며있는 봉은사는 이제 40여년간 사부대중의 발원을 가로막았던 도시공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라는 소중한 실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자들만의 결실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시민과 사회에 함께 하겠다는 향기로운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불교가 문화강국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시대적인 모범이자 청사진입니다. 나아가 우리 종단 총본산성역화 불사에 큰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종단의 미래를 향한 발원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마음은 무한경쟁과 소외로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마음까지 나누는 풍요로운 정신의 그루터기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함을 잃지 않고 서로서로가 의지하는 고마운 관계임 깨달아, 진실한 행복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공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진력을 다하는 주지 원명스님과 소임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진에 깊은 격려를 전합니다. 봉은역사공원 조성이 함께한 원력으로 향기로운 불과를 이루고, 모두의 공덕이 환히 빛나기를 청명한 기운으로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6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